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전두환 부역'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두환 부역' 논란을 둘러싼 난타전이 연일 진행되면서 경선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는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수습처관실에서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이용섭 예

자격 시비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 측은 중앙당의 컷오프 심사 후 하루가 멀다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정당한 공직자를 전두환 정권 부역자로 비방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 대 비방선거의 대결"이라며

안이고,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더 이상 5·18과 관련해 불필요한 비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한 마디하겠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용섭 후보의 이력서는 참 길고 화려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이력만 보자"며 "이 후보는 당시 했던 일들을 소상히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 "靑 핵심 실무자" vs 李 "일방적 가짜 뉴스" 양향자 "두 후보 모두 자유롭지 않아" 양비론

비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 측은 "전두환 정권이 신설·확대했던 사정비서관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공직 탄압에 앞장섰던 곳으로 이 후보가 1987년 김종건 당시 사정비서관 등과 청와대 내부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국가기록원 공직자료로 보관돼 있다"며 "당시 4급 서기관으로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이 후보가 광주시장이 된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5·18과 광주의 정체성을 들어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여론조사 선두인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흑색선전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차례나 문제없이 통과해 '정문화 하이패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난 두 번의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문제 없다"는 검증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회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10년 광주시장 선거 때 철저히 검증된 사

안이고,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더 이상 5·18과 관련해 불필요한 비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한 마디하겠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용섭 후보의 이력서는 참 길고 화려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이력만 보자"며 "이 후보는 당시 했던 일들을 소상히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렀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에 입성했지만 강 후보가 당 중진이 되는 동안 왜 이 후보를 검증했는지 궁금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 50% + 시민안심번호 ARS 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은 18~20일, 결선투표는 23~24일 이뤄지며, TV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의당 광주지역 예비후보 15명 "세력·세대교체"

광주정치 혁신-광주 바꿀 약속 각각 5가지 제안



6·13 지방선거정의당 광주지역 예비후보 15명은 11일 "세력교체와 세대교체를 통해 노력이 당당한 청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장연주·박종선 광주시의회 후보(비

례) 등 15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정치혁신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과 광주를 바꾸는 정의당의 다섯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5대 정치혁신안은 ▲유신적폐인 박정희 장학금,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지방의원 해외연수 혁신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의회 원전 비례대표제, 구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임기 중 형사사유로 관결을 받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공정한 정당은 해당 보궐선거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할 것 ▲중앙당에 대한 의문과 간섭을 벗어나 지역현안과 발전에 대해서 스스로 당론을 정하고 책임지는 정당 문화 정립 등이다.

광주를 바꿀 5대 약속은 ▲청년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청년부시장제 도입과 시 예산 5% 청년예산 편성 ▲노조 조직률 20% 상향 ▲성평등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계획 취소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도시공민 일몰제 대비 중앙 정부 예산 확보와 시 재정 투입을 통한 도시공민의 단계적 매입과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이다.

최남규 기자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동체텃밭·공영농장 확대·맞춤형 도시농업프로그램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도시농업인의 날을 맞아 도농복합지역인 남구의 도시적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인을 늘리고 공영농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공동체텃밭을 확대하고, 세대별, 계층별로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인 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3곳인 공영농장을 확대해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생각이

다.

도시 전체 면적의 63%인 38.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남구는 지역적 특성상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활성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현재 남구의 도시농업참여자가 수는 2천여명으로 광주 전체(5만2천명)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공영농장도 광주 34곳 중 남구는 3곳(민영농장 포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마을의 자부리뿐 아니라 공폐가를 적극 활용해 공동체 텃밭을 늘리고 영유아, 청소년, 가족, 실버세대 등 내용을 차별화한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회당텃밭(양파동), 송화마을두레텃밭(행암동), 덕남도시텃밭(덕남동) 등 3곳



에 불과한 공영농장은 그 수를 늘려 도시농업의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도시농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온난화, 열섬효과 방지, 생태계 회복, 공동체복원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광주 도시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조충훈 순천시시장 예비후보 "코스트코 재 유치 추진"

광양 LF아울렛에 뺀 상권 되찾을 특단 대책 시행

"광양LF아울렛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빼앗긴 상권을 되찾아올 특단의 대책으로 신대지구에 코스트코 유치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조충훈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1일 순천시 신대지구 코스트코 예정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 코스트코 재유치 추진을 선언했다.

조 예비후보는 "신대지구에 코스트코 입점 논의가 진행되면 당시는 광양에 대형 아울렛이 개점하지 않아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달랐다"면서 코스트코 유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광양 LF아울렛 입점으로 인해 순천지역의 소비 동선 변화와 지역상권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코스트코를 광양 와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순천 상권의 광양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다.

조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민약 광양에 코스트코 유치가 가시화된다면 지역상권은 바닥을 칠 것이 없을 보듯 본다"며 "순천의 상권을 광양에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 코스트코 측과 직접 만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코스트코 유치는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순천 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스트코가 유치될 경우 전남권, 전북권, 진주, 경남 서부권을 포함한 100만 이상의 쇼핑객 방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잡월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신대지구 아



파트 하자과 관련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설치·운영해 공동주택의 입주에서부터 5년, 10년 차 하자보수까지 전문가 집단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1단지외 6단지 그리고 소송 준비 중인 2단지의 경우 시가 협조해 소송을 진행하고 전남교육청, 중흥,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체결해 2020년 3월 신대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테마도서관에 아이들의 발표회장으로 이용될 500석 규모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유소년 수영장에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주민 평생학습공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 "다목적체육관 건립"

6·13 지방선거 김보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를 대표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노려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은 구민 건강과 밀접함으로 재정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청, 의회, 종목별



단체와 협의구를 만들어 현장 중심 체육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서구체육회 발전을 위해 최근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아서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